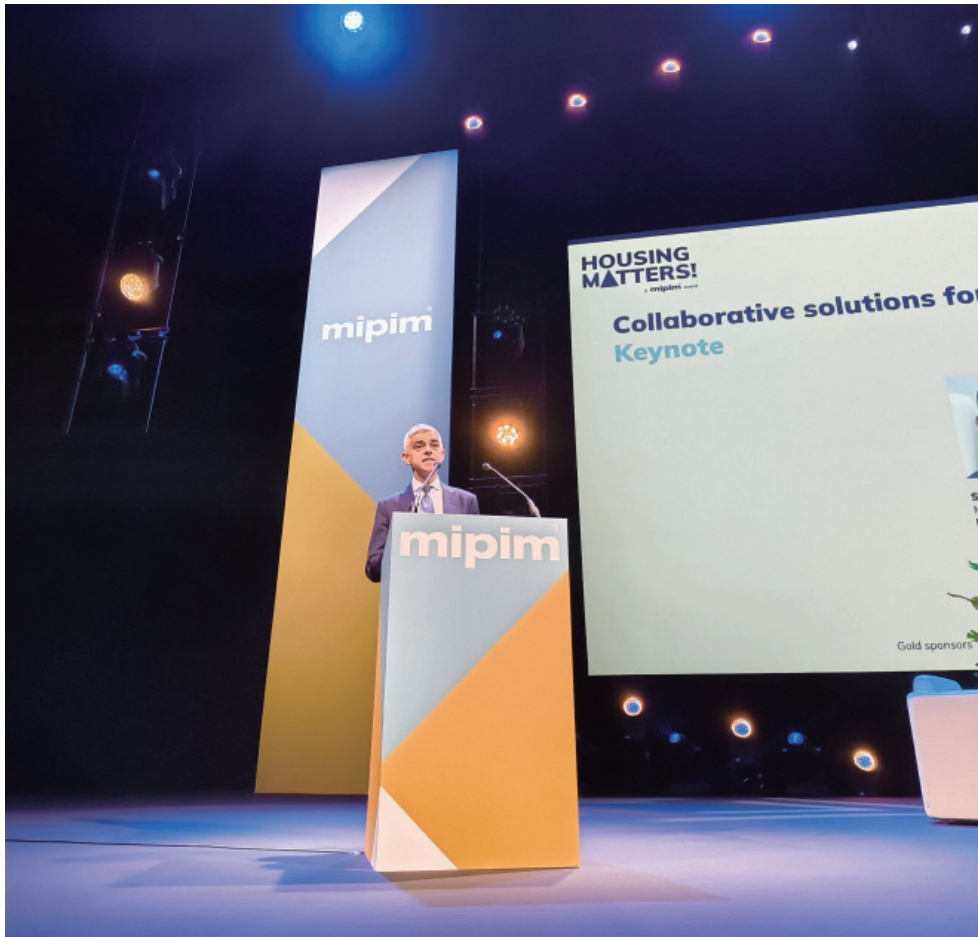


칸에서 칸을 기다렸다



아^ㅏ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이 2025년 3월10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열린 국제 부동산 박람회(미팜)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5년 3월10일부터 13일까지 세계 부동산 박람회 MIPIM 취재를 위해 프랑스 땅을 밟았다. 출장지는 영화제로 유명한 칸. 칸을 방문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영화제가 열린다는 정보밖에 몰라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다.

MIPIM은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세계 각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박람회다. 도시 개발, 스마트시

티, 지속 가능성, 주거 트렌드 등 부동산 산업의 주요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컸다. 이번 취재의 목적은 글로벌 부동산의 흐름을 읽고, 이를 한국의 현실과 연결 지어 기사화하는 것이었다.

프레스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다.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행사장에 들어서자 이방인으로서의 긴장감도 있

있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다. 개막일에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그는 공공주택 확대와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런던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륙은 달랐지만 서울의 주택 문제와 비슷했다.

연설 후 열린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다. 스웨덴 건축가, 아일랜드 더블린 시청 관계자, 덴마크 코리빙 플랫폼 라이프엑스 관계자들을 통해 유럽 주거 시장의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코리빙 하우스’ 개념이었다. 개인 공간은 유지하되 체육관·도서관·공동주방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고립을 피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코리빙하우스를 선호하고 있어 이야기를 나누기가 낯설지 않았다.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수확은 MIPIM 둘째 날,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의 단독 인터뷰였다. 칸에서 칸을 기다렸다. 발표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즉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응했다. 한국에서 익숙한 ‘뺨치기’가 외국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에 기자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주요 인사를 기다리다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로 연결하는 이 방식은 낯선 현장에서도 유효했다. 그는 서울을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평가하며, 서울시와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기자에 대한



베사 팔렌더 핀란드 투르쿠시 경제 개발 국장이 2025년 3월13일 (현지시간) 국제 부동산 박람회(MIPIM)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그의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는 한국기자체장들과는 다른 인상을 남겼다.

셋째 날에는 ‘더 클라이밋 컴퍼니’ 부스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도시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 기후 변화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줬다. 서울 경복궁 주변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 환경 변화가 어떻게 도시 계획과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동시



마이클 코너 독일 라이프치히 투자부 본부장이 2025년 3월13일 (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열린 국제 부동산 박람회(미팜)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에 MIPIM 홍보대행사 ING의 조지영 매니저와 연락이 닿아, 유럽 공무원 인터뷰 일정도 조율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독일 라이프치히와 핀란드 투르쿠의 도시개발 담당자들과 정식 인터뷰를 가졌다. 사전 조사를 통해 각 도시의 특징과 인구 동향을 파악한 덕분에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라이프치히는 폐탄광 지역을 인공호수로 바꾸며 도시

재생에 성공한 사례였고, 저렴한 생활비로 유럽 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었다. 투르쿠는 학생과 이민자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 중이었다. 이들의 전략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한국 지방도시에도 참고가 될 만한 현실적인 해법이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점은 한국의 낮은 해외 인지도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나를 일본인으로 착각한 프랑스 참가자도 있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원룸 가격과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다. 이들 덕분에 기사를 잘 쓸 수 있었다.

행사장 내 기자실에서 각국 기자들과 함께 기사를 마감하던 풍경도 기억에 남는다. 대부분이 유럽 국가에서 온 기자였다. 한국 기자는 나 혼자였고, 일본 기자는 세 명뿐. 국적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집중력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마감에 몰두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기자’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해외 연수는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인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국내 취재 현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